

- 과목명 : 한국의 현대문화
- 이 름 :
- 아이디 :
- 과제명 : 홉스테드((G. Hofstede)가 제시한 사회문화적인 차원 즉 '권력거리(power distance)의 크기, 집단주의(collectivism) 대 개인주의(individualism), 여성성(feminity) 대 남성성(masculinity), 불확실성 회피(uncertainty avoidance)의 강도 등'에 따라 한국인의 사회 문화적 정체성을 제시해 보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권력거리의 크기
2.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
3. 여성성 대 남성성
4. 불확실성 회피

III. 결론

I. 서론

홉스테드는 문화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화’를 통해 현지화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홉스테드는 문화적 차이의 기준을 정하러 연구했다. 문화를 4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권력거리,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남성성과 여성성, 불확실성 회피 이렇게 4가지로 구성했다.

II. 본론

1. 권력거리의 크기

홉스테드는 국가별로 그 사회에 있는 불평등을 받아들이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했다. 한 나라의 제도나 조직의 힘없는 구성원들이 권력의 불평등한 분포를 기대하고 수용하는 정도로 규정했다. 불평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예를들어 권력거리가 큰 사회, 수직적 계층 문화를 갖고 있다고 했다. 위와 반대로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쉽게 접근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권력거리가 작은 사회, 평등 문화라고 정의한다.

권력거리가 작은 사회의 특징으로는 자식은 부모와 동등한 존재로 대우받고 직장 내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동등한 존재라고 여기며 임금 격차가 적다. 정치적 차원에서 권력 행사는 합법적이어야하며 기술, 부, 권력, 지위가 반드시 함께 따라다니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지녀야 한다고 본다.

권력거리가 큰 사회의 특징으로는 부모에 대한 복종과 효, 연장자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고 위계질서가 강하며, 직위 내세우고,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중시된다. 임금격차가 크며 정치적 차원에서 정당성보다는 힘이 앞서고 기술, 부, 권력 그리고 지위가 함께 따라다닌다. 즉 권력을 가진 자가 특권을 누린다고 볼 수 있다.

권력거리의 크기에 따라 한국인의 사회 문화적 정체성을 제시해보자면 우리는 권력거리가 큰 사회에서 점점 권력거리가 작은 사회로 변화중이라고 생각한다. 예전부터 중국의 사상을 받아들여, 효 등 윗 사람에게 공손하며 예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사회였다.

그러나 요즘은 세대가 지남에 따라 점점 동등한 관계로 혹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 오히려 노인 혐오 사상이 일어난다고도 생각한다. 이거는 변화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의견인 시각 혹은 의견이라 생각한다.

2.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기준을 나누기 위해서 개인들이 단체에 통합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가지고 나눠보려한다.

개인주의 사회의 특징으로는 개인의 권리와 성취를 중요시하고 자식의 소속을 스스로 결정하며 직계 가족과 자기를 중요시한다.

집단주의 사회의 특징으로는 개인은 소속된 집단이나 조직 구성원으로 행동하고 대가족 중심, 절대적 충성을 요구한다.

개인주의의 특징을 가진 나라로는 서구 선진국 등 예를들어 북아메리카와 유럽은 상대적으로

개인주의 사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는 이에 반해 매우 강력한 집단주의 가치관을 가진 사회라고 본다. 가족주의와 우리주의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나라는 한국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나라,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딸 등 우리라는 호칭을 많이 쓴다. 이것이 개인보다는 집단을 우선시하는 한국사회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체면과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인데 이것도 하나의 집단주의 성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한국도 이제 집단주의에서 점점 개인주의로 넘어오는 추세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계기가 된 이유는 인터넷의 발달과 그리고 유튜브 등 다양한 세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현실 세계가 아닌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상의 세계에서도 사람들이 충분히 즐기고 돈을 벌 수 있는 수단, 직업이 많이 생기다보니 점점 개인주의 성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한다.

3. 여성성 대 남성성

남성적 문화와 여성적 문화를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남녀 성별 간 감정적 역할의 분화정도로 기준을 나눈다.

남성적 문화 사회에서는 경쟁력, 자기주장, 유물론, 야망, 권력등을 중요시하고 성 역할의 차이가 크고 유동성이 작다.

여성적 문화 사회의 특징으로는 대인관계, 삶의 질을 높게 평가하고 정숙, 헌신 같은 개념을 남녀 양성 모두 강조 받는다고 본다.

한국은 삶의 질보다는 물질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남성성의 사회라고 볼 수 있다.

지금의 한국은 남성성과 여성성이 적절한 비율로 넘어가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쟁력, 자기주장, 야망, 권력등은 여전히 중요시 하면서 반대로는 삶의 질도 중요시한다고 생각한다. 두가지의 입장이 모순되는거 같기도 하지만 요즘 또래 혹은 더 어린 나이의 학생들을 보면서 돈은 많이 벌고 성공하고 싶지만 삶의 질도 중요시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아마도 새로운 세상 유튜브등 다양한 직업군 그러나 쉽게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들이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성 역할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집안일과 육아는 모두 여성의 의무였지만 요즘은 점점 남성들도 집안일과 육아를 하려고 노력한다. 아직은 공평하게 (공평하게라는 단어가 맞는지는 모르겠다) 가사 분담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점점 남성도 가사의 의무를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전업주부라는 단어들은 예전에 여성에게만 쓰는 단어였지만 요즘은 남성이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육아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본다. 아마 이것도 미디어의 발달로 바뀐 문화상이라고 생각한다.

4. 불확실성 회피

불확실성 회피는 한 문화의 구성원들이 불확실한 상황이나 미지의 상황으로 인해 위협을 느끼는 정도라고 정의했다. 잘 알지 못하는 것 혹은 자기와 다른 것으로부터 느끼는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피하는 정도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불확실성 회피 차원은 집단주의 성향과 관련된 듯 보이기도 하며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사회에서는 외부 집단에 배타적이고 불확실하거나 낮

선 것에 대하여 경계하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다.

불확실성 회피 문화의 특징으로는 감정적인 경향, 알 수 없거나 이례적인 환경 발생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사회변화는 계획과 규범, 법과 규제를 이용해 신중하고 점진적인 방향을 택한다.

불확실성 수용 문화의 특징으로는 비체계적인 상황이나 가변적 환경 편안함 받아들이고 규칙은 되도록 적게 만들며 보다 실용적인 경향을 띄며 변화에 관용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불확실성 회피 경향이 강한 편에 속한다. 그 결과 낮은 것을 두려워하고 외국인을 피하며 융통성이 부족하며 혈연과 지연 및 학연에 얽힌 집단 내부 구성원 간 결속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이 바쁘고 감정적이며, 공격적이고 활동적인 경향이 있으며 자살율, 알코올 중독율, 사고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내 생각에도 우리나라는 불확실성을 많이 회피하는 문화라고 생각한다. 그 특징으로 자살율이 높고 알코올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국의 빨리 빨리 문화도 어쩌면 이런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마음에서 빠르게 일을 처리하려는 마음에서 생긴 문화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또한 요즘 덜해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혈연과 지연 및 학연에 따라서 집단 내부 구성원간에 결속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내용 중심 언어 교육에서는 교사의 개입이 소극적일수록 학습자 간의 대화가 늘어나고 스스로 의사소통을 해보고 문제 해결까지 진행하면서 학습자의 한국어 습득이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하나 그렇다고 교사가 아무런 개입 혹은 방치를 한다면 내용 중심 언어 교육이 산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한다. 개입을 안하는 것이 아닌 소극적인 개입,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선을 지키기 위해서 교사는 단순히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안에 여러개의 그룹이 있다면 그룹을 돌아가면서 대화를 잘 진행하고 있는지 주제가 다른대로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성실히 체크해야한다.

그리고 조금 더 학생들에게 목표의식을 주기 위해서 30분의 대화 시간이 있다면 5분 정도는 그날의 목표를 설정하고 20분은 대화 나머지 5분간 오늘 대화에서 배웠던 내용을 요약해서 조마다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학습자들이 대화중에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보다는 수업 안에 나름의 과제 (발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거 같다.

III. 결론

이번 과제를 진행하면서 과연 어떤 문화가 더 좋은 문화일까 라는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다. 내가 생각할 때 좋은 문화라고 생각하는 것은 권력거리의 크기가 작고 개인주의 성향이 조금 더 강하며 여성성이 조금 더 큰 사회 그리고 불확실성을 수용하는 문화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제를 마무리 할 때 쯤 든 생각은 어쩌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의 반대 문화를 좋아하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내가 많이 겪어보지 못한 문화를 살고 싶어하는 것은 아닐까 지금의 사회가 힘들다고 반대의 문화로 회피하려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와 반대되는 문화를 가졌다고 마냥 좋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우리와 반대의 문화를 가진 사회도 지금 내가 느끼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나라의 문화를 좋아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결국은 다양한 사회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므로 항상 열린 마음으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1. 네이버 백과사전
2. 한국의 현대문화 교안 1~7주차
3.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kma8835/221857929730>